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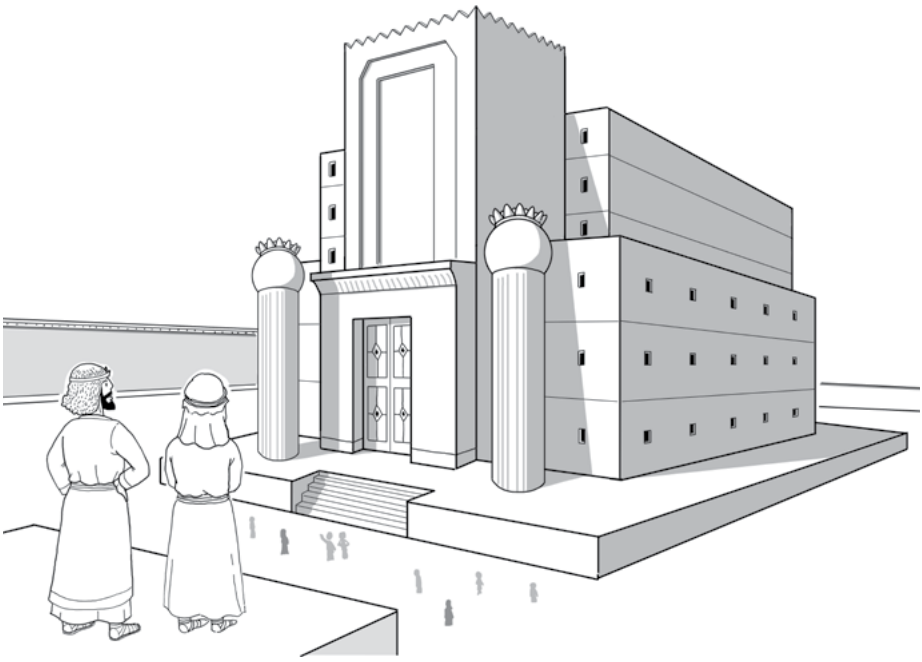
솔로몬의 성전 건축

대하 2~7장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2장 (내 안에 있는 예수)



1.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에 즐거이 참여했음을 압니다.
2.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을 위하여 전을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을 위하여 전을 하고 (대하 6:8~10)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린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 주신 성전의 식양을 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수행할 것을 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그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 성전 건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 주고 사서 성전 터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다윗의 준비와 백성들의 합심, 협력, 순종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재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이방인들도 동참하였으며,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는 돌을 다듬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만인 솔로몬 재위 11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은 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0~22)

having been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 stone, in whom the whole building, being joined together, grows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in who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for a dwelling place of God in the Spirit. (Eph 2:20~22)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된 이유를 적어봅시다(대상 28:2~3).

2

솔로몬의 성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성전의 크기, 두 기둥의 이름 등).

3

성전이 갖는 의미와 교회와의 관계를 적어 봅시다(엡 2:20~22).

4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나의 생활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봅시다(고전 6:19~20, 고후 6:16).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26:8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이

시 27: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고전 3:1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고전 6:19

↓

고전 6:20

↓

고후 6:16

↓

딤후 3:15



감사함으로 다듬는 석공

18세기 한 영국의 건축가가 교회당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당 건축을 여러 해 계속 하던 어느 날, 건축가는 평복을 입고 공사장에 나가, 힘들게 돌을 깎고 있는 석공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이 투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이 6자, 너비 3자의 돌을 다듬고 있소.” 두 번째 석공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또한 반감지 않은 표정으로 “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지요. 벌써 몇 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오.” 하면서 짜증을 내었습니다.

수십에 잠긴 건축가가 세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소.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 이 거룩한 일에 한몫을 담당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 돌들을 다듬고 있지요!”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앞의 두 석공과 세 번째의 석공의 마음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건축가는 참으로 감격하며 세 번째 석공의 삶의 자세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全能)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전지(全知)하신 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든지 계신 편재(遍在)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靈)으로서 늘 살아계신 영원(永遠)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구원을 받으면 깨닫게 되나 굳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다음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10)

성령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전능(全能)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전지(全知)하신 분입니다. 또, 성령은 어디든지 계시므로 편재(遍在)하신 분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 139:7)